

‘무안군민의 날’ 개최… 군민 화합·경제 활성화 도모

16일 종합스포츠파크 일원서 풍물놀이 9개읍면 입장식 등 한우·한돈 할인 판매장 운영 의료지원 안전관리 체계 편성

전라남도 무안군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제56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다. 무안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 화합과 농공단지 생산품 홍보·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군

민이 주인이 되는 날’을 슬로건으로, 군민과 향우, 관광객 등 5000여 명이 함께 하는 지역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풍물길놀이와 9개 읍면 무지개 입장식 △푸른동행 Clean 무안 결의대회 △군정발전유공 및 효자·효부 표창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읍면별 단체 화합경기(5종) 등 군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푸른동행 Clean 무안 결의대회’는 군민 모두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무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담은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축하공연이 펼쳐져, 진성, 김혜연, 현진우, 허찬미, 박우철, 농수로 등 인기 가수들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 맛뜰무안몰 홍보, 한우·한돈 할인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스도 운영되며, 부서별 체험·홍보관과 함께 의료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도 철저히 마련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안군청 자치행정과(061-450-5352)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의 날 행사는 당초 5월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여러 요인으로 연기됐다”며 “모내기 등 농촌 일손이 바쁘시더라도 군민과 향우,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이 오셔서 무안의 자부심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은 다양한 삶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공동체다”며 “군민 모두의 헌신과 열정은 무안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으로, 이번 군민의 날이 화합의 장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연꽃축제’ 기념 SNS 인증 이벤트 무안군, 26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회산백련지에서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를 기념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과 연계해 무안연꽃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무안의 우수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에 축제장(회산백련지) 방문 인증샷을 찍거나 무안군 공식 SNS에 게시된 축제 홍보 게시물을 리그램 또는 공유한 뒤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무안연꽃축제, #맛뜰무안몰)를 포함해 게시한 후, 맛뜰무안몰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군은 참여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해 무안 양파 3kg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만 18~39세 청년 대상 임차인 모집 영암군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전라남도 영암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시설농업에 나설 임차인 1명을 모집한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임차인 모집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온실 시설 농업 운영 경험·기술을 전수받고 시행착오를 줄여 영농창업으로 나아갈 발판을 갖추도록 마련됐다.

영암군이 빌릴 수 있는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626㎡ 연동형 온실 1동이다.

영암군민 만 18~39세 청년 중 영농 기반이 없고 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토마토나 멜론이고 임대기간은 3년에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서는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061-470-6592)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문내면의 한 유기농 오디농장에서 오디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유기농 오디 수확 한창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유기농 오디농장에서 검붉게 물든 오디 수확이 한창이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로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잎을 얻기

위해 과거 대규모로 재배가 되었던 시절에는 새콤달콤 맛있는 주전부리 과실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오디는 신선한 맛에 더해 최근에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다. 각종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혈관과 피부, 항산화 기능까지 갖춘 것은 물론 잎과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것 없이 식재료와 음료, 약재로 두루 쓰인다.

오디는 농가 직거래와 해남군 직영소핑몰 ‘해남미소(www.hnmiso.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해경, 자동음성알림 장치 설치 선제적 사고 예방

해양 안전 경각심 제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자체 제작한 ‘자동음성알림장치’를 목포시 북항부두에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음성알림장치는 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음성을 송출하는 장치로 주변을 지나가는 행락객이나 어민들에게 안전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비를 개발하고 설치한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시기별 취약 요소에 따라 안내 문구를 변경하고 이동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인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 운용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인근 항·포구에 추가 설치하는 등 개발 장비를



목포해양경찰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음성알림장치’를 북항부두 일원에 설치했다.

목포해경 제공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형준 북항파출소장은 “북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사고 예방 음성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양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해남군,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

전라남도 해남군은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33명이며 취약계층 등 우선선발 20%, 일반선발 80%로 선발유형을 구분해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의 경우 해남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읍면사무소(지역아동센터 포함)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19일 오후 2시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참석자에 한 해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23일 군 누리집 및 개별 문자를 통해 공개한다.

선발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군 실과소와 읍면 등에서 행정사무 및 현장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해남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안내

전라남도 강진군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체 1만 5000건에 대해 총 15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6월분은 1년 세액의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이미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모바일 앱(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간편결제도 제공돼 다양한 납부 수단이 마련돼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군은 해당 세원을 통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생활편의 증진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